

세계 디아스포라 학회 창립 주도적 역할

임채완 전남대 교수 정년기념 학술대회

35년간 재외동포와 디아스포라(이산) 문제를 연구해온 임채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세계한상문화연구원장의 정년 기념을 겸한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통상적인 기념식이나 책 발간이 아닌, 국제 학술대회를 겸한 정년 기념식이라는 점에서 대학가 안팎에서 화제가 됐다.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지난 27일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에서 '국제질서, 국제이주, 그리고 글로벌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 교수의 정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6개 세션으로 나뉜 '국제학술회의'와 '정년 기념 국내학술회의'로 진행됐다.

임 교수는 지난 1991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6개 한글학교 설립을 주도하면서 재외동포와 인연을 맺은 뒤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설립 ▲디아스포라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전문학술지 '디아스포라 연구' 발간 ▲대학원 과정인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개설 ▲세계 디아스포라학회 창립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이날 "앞으로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전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이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1세기 한민족시대를 여는 이론적 토대를 놓는데 여러분이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민주마루' 개관 기념 클래식 공연



전남대 '민주마루' (옛 대강당)가 멋진 클래식 공연(사진)으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전남대(총장 지병문)는 지난 27일 광주·전남 지역민과 교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개교 64주년, 총동창회 창립 60주년, 민주마루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로,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전남대 예술대 교수·동문·학생들이 함께 출연,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다.

전남대는 공연이 끝난 뒤 지병문 총장과 노동일 총동창회장, 김영철 전남대학교 교수회장, 민주마루 예산확보에 공이 큰 임내현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마루 개관 축하연을 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사대부와 총동문화 무등산 등반대회



전남대 사대부와 총동문화(회장 김선진)는 지난 28일 무등산 일원에서 동문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등반대회를 열고 3개 코스로 나눠 산행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대 사대부와 총동문화 제공>

“장애인에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 심어주고 싶었어요”

무등산무등길 걷기 행사 '장애인 산악인' 김홍빈 대장

지난 27일 무등산 자락의 담양군 남면 연천리 '독수정'에 흰옷을 맞춰 입은 50여명의 사람들이 용기종이 모였다. 그는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던 이들의 눈과 귀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독수정은 고려 공민왕 때 병부상서를 지낸 전신민 선생이 고려가 망하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은거하면서 지었어. 정자 이름은 이태백 시에서 따온 것으로 은둔하는 선비의 고결함을 뜻합니다.”

이들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냈던 김인주 무등길해설사의 설명이 끝나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 선두에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있었다.

김 대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31명과 롯데슈퍼 자원봉사자 등 모두 50명과 '김홍빈 대장과 함께 걷는 무등산 무등길'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금곡리 정자에서 평촌, 원효계곡, 독수정 등을 지나는 무등길 4길(3km)과 함흥이재를 거쳐 절골, 경상리 정자를 거치는 무등길 5길(4km)을 돌았다.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늘 거침없

지역 장애인 144명 참여

역사 서린 숲길 걸으며

심신단련·여가활동 만끽

이 도전하는 김 대장에게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김홍빈 대장과 함께 걷는 무등산 무등길' 행사는 더 각별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명산 무등산을 한 번도 가보질 못한 장애인들이 많아요. 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의욕이 없어 산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김 대장은 ㈜어등산리조트와 트랙스타의 후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김홍빈 대장과 함께 걷는 무등산 무등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3회째 진행된 이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만 144명에 달한다.

그는 “장애우들은 차별과 소외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 도우미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며 “장애인들에게 여가활동을 통한 심신단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김홍빈 대장과 함께 걷는 무등산 무등길'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 참가자들을 이끌고 있는 김 대장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6194m) 단독등반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로 일 손가락을 잃었다.

하지만, 그에겐 포기란 없었다. 1997년 유럽 엘브루스(5642m)부터 2009년 남극 빈슨매시프(4897m)까지 12년에 걸쳐 세계 7개 대륙 최고봉을 올랐고, 8000m급 14좌로 눈을 돌려

베레스트, K2, 가셔브롬Ⅱ, 시샤파파, 마칼루, 다울라기리, 초오유, 칸첸중카까지 8개 봉 등정에 성공했다.

한편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8000m 14좌에 도전하는 김홍빈 대장은 다음달 10일 오후 5시30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홍빈 남기파르밧(8125m) 원정대 발대식'을 갖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4기 원우회 여수서 워크숍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4기 원우회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상반기 워크숍을 가졌다.

최갑렬 원우회장 등 60여명의 원우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향일암, 돌산대교 등 여수 유

명관광지를 둘러보고 MVL 호텔에서 원우 단합의 밤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최갑렬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4기 원우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로 단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행사를 기획해 광주일보 평생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원우회로 꾸러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법사랑위원 보호복지위

오동식 부회장 200만원 기탁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회 오동식(대리주택건설 대표·왼쪽) 부회장이 지난 27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에서 대리수 건분주택을 오픈하면서 법무보호사업 사업비 200만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한석남)에 기탁했다.

오 부회장은 “사회적 약자인 법무보호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자립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며 “범죄 없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보성 득량서초교 졸업생 42년만에 수학여행 꿈 이룬다



50대 중반을 넘어선 산골출신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졸업 42년 만에 수학여행의 꿈을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보성군 득량면 마천리에 소재한 득량서초 16회 졸업생. 지난 1974년 2월 초등 학교를 졸업했지만 재학 당시에는 ‘수학여행’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던 세대이기에 이번 여행의 의미는 남다르다.

봄·가을로 나눠 학교 인근으로 소풍 가는 것이 전부였던 당시 강원도나 바다를 건너야 했던 제주도 여행은 그저 꿈에 불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강원도 수학여행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1년을 준비한 끝에 지난 28~29

일까지 강원도 춘천 일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창생을 비롯한 부산, 전라, 충청, 수도권에서 40여 명이 참여했다.

임순목(호주 시드니 거주)씨는 “지금은 페고기 돼 학교는 사라졌지만 고향과 모교에 대한 그리움은 떨칠 수 없었다”며 “이번 수학여행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중년인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김정대(광주시 일직리정채과장)·이해영씨 장남 병국군 박형기·허정선씨 장녀 건희양=6월4일(토) 오전 11시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 3층.

알림

▲일가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회복지법인 수안실버비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조. 062-959-2340.

▲광주생명전환 한마음가정폭력상담소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 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233-919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주시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하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명심리상담센터=장애 및 일반 아동·청소년, 성인의 심리·언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치료 서비스 제공(심리·언어·미술·대상자·놀이치료 등)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 062-222-0034.

▲모집
▲동구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육성 교육 수강생=6월10일(금)까지 핸드마사지 및 네일아트 교육, 봉사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 가능, 문의 062-228-136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과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

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요가 월~목 문의 062-951-9461.

▲설현차문화연구원=독자,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빙시 장안쪽 관리사무소 062-512-5788, 062-262-1542.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이경화 님(남/84세) 子/子婦 : 이장영/이현숙, 강용 女/婿 : 이희경/유재선, 승원/문승호, 명희/박진표 未亡人 : 주영숙 *발 인: 5월 31일 *장 지: 담양 천주교묘지 *연락처: 227-4381	301호 故윤주영 님(남/80세) 子/子婦 : 윤태영/유태희, 재영/이보람 女/婿 : 윤수영/나원근, 나영/최성원, 지영/박찬준 未亡人 : 현정자 *발 인: 5월 3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2
402호 故정래주 님(여/91세) 子/子婦 : 박현중/주성희, 현태/소정민 女/婿 : 박미주/장병기, 미선 *발 인: 5월 3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101호 故홍대주 님(여/71세) 女/婿 : 임창이/송경삼, 정례/정태주 *발 인: 5월 30일 *장 지: 보성 특량선양 *연락처: 227-4000
102호 故김철호 님(남/71세) 子/子婦 : 김정태/이희선, 정석 女/婿 : 김리희/공태경 未亡人 : 임도진 *발 인: 5월 3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부음

▲윤주생씨 별세 태영·재영(전 무등일보 기자)·수영(안도유치원)·나영·지영씨 부친상 나원근(나원메디칼 대표)·최상철(목우건설 대표)·박찬준(한전원자력연료)씨 부부상 유태희·이보람(광주일보 기자)씨 시부상=발인 31일(화) 광주시 동구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10-7697-0208.

▲이영애씨 별세 조성훈·성호씨 모친상=발인 30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6분향소 062-231-8906.

▲최재열씨 별세 원용·성덕·성례·문정·선영씨 부친상 고재식·황준중·반재금·노일환씨 부부상=발인 30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